朝鮮日報

發行所 京城府 朝鮮日報社

思潮의 趨勢와 日本의 政變觀

國際勞働運動史 (五五)

猶太의 建設運動 (七)

族의 優秀

三、實力의 充實과 種

婦女解放運動에 對하야 (九)

上海 鄭泰女史

社會問題의 客觀

三、社會問題의 解決策

四、社會改良主義

藥山東臺에서 (二五)

文大南

妙香山

詞藻

牝鷄歎

中國政局

交通部鐵道警備案

職員을 任命

(北京電) 中國交通部에서 鐵道警備의 大綱을 決定함은 已報하얏거니와 此를 據한즉

一、國有鐵道를 警備하기 爲하야 交通部內에 鐵路警備事務處及警備隊를 置함

二、鐵道警備事務處는 鐵道警備의 最高機關이오 且鐵道一切의 警備를 總攬함

三、鐵道警備事務處에서 警備隊를 編成하고 防備는 狀況에 應하야 各鐵道에 分配할 事

四、鐵道警備事務處에 敎練所를 設置하고 新舊의 警備隊를 訓練함

五、各鐵道의 警察署는 當該警備隊의 節制를 受하고 鐵道警備事務는 鐵路警備所에 命令에 從하야 當該鐵道의 局長又는 督辦이 此를 處理할 事等이니 交通部鐵道警備事務處規則은 二十個條로 成하고 事務處는 第一、二、三部及敎練所의 四部로 各々規定한 事務를 分掌케 하고 必要한 境遇에는 鐵道警備에 經驗이 잇는 外人을 招聘하야 觀察敎練케 할터인데 此에는 交通總長의 許可를 要하기로 하고 事務處에는 處長一人、副處長一人、專任副處長을 置하고 處長은 交通次長이 兼任하고 副處長은 交通總長이 此를 任命할 事等을 規定하고 卽時『문싸』中將을 總敎練官으로 交通次長孫多鈺氏를 處長으로 梁上棟氏를 副處長으로 王賡氏를 專任副處長으로 各々任命하얏더라

附屬地移管問題

中露間諒解成立說

(奉天電) 東中鐵道附屬地移管問題에 關하야 目下奉天에 在하는 『카라한』氏는 鐵道經營의 主權을 露國側에서 掌握하고 且白派露人을 此鐵道에서 驅逐하는 代에 赤派露人을 使用하기를 承認하면 行政、司法、警察等權利를 中國에 讓渡할 意向이 有하야 中國側에서도 相當히 諒解한 貌樣인 故로 中國側의 四國領事에 對한 態度가 頗히 強硬하야 現今此問題가 交涉中에 在함을 不計하고 中國側에서 附屬地移管의 計畫을 着々進行하야 哈爾賓、長春間의 寬門驛土地管理事務所가 中國官憲의 脅迫으로 閉鎖되야 中國兵이 嚴重監視하고 東部線의 綏芬、西部線의 海拉爾等沿線의 主要驛土地事務所도 亦閉鎖되얏다는 報가 有하더라

歐米情報

白國對英回答內容

(倫敦二十八日發電) 英國賠償公文에 對한 白耳義回答은 英佛關係의 龜裂을 接合하며 右兩國의 協調와 一致를 回復하라는 意를 示하고 又公文을 交換하는 代에 聯合國各員이 互相會合하야 愼重히 審議하기를 主張하얏더라

別報

(巴里二十七日發) 白國의 對英回答은 佛國首相『포안가레』氏에 內示한 後에 本日英國에 送致하얏는데 此는 佛國의 回答보다 短文이오 佛國의 回答과 同樣으로 妥協的인데 今에 英佛兩國間은 融和的이 되야 形勢前途에 光明을 認하게 되얏더라

米國布哇軍港改築

十五個年完成計劃

(紐育電) 布哇眞珠灣軍港改築에 關하야 更히 詳密한 計畫이 漏洩되얏는데 此에 依한즉 眞珠灣根據地를 十五年計畫으로 此費用約三百萬弗을 每年支出하고 其他의 根據地는 二十年間으로 完成코자 하는데 海軍省의 主張하는 바는 右計畫은 飛行術의 發達其他事情의 變化에 鑑하야 每年改訂함을 得한다 하고 又根據地는 豫定보다도 短時日에 完成케 할지오 假令右根據地가 完成할지라도 戰時의 根據로 完全한 設備를 施行키 不能함으로 更히 巨大한 金額의 支出을 負擔할 것은 오직 平時의 必要를 滿足히 함에 不過하고 今回의 計畫에 依한즉 根據地는 容易且急速히 함을 得한바 尙且米國海軍當局者의 傳하는 바에 依한즉 華府海軍條約에 依하야 戰鬪艦隊를 制限한 結果今回의 海軍根據地改築은 軍艦의 移動性과 戰鬪的價値를 增大하게 된다니하얏더라

露國政府對英抗議

『우란겔』島의 國旗問題

(莫斯科電) 加奈陀政廳이 『우란게르』島에 英國國旗를 樹立한 것은 露國國權을 侵害하는 것이라 하야 露國外務省에서 英政府에 抗議하얏는데 同島는 一八二一年『우랑게리』中尉가 占領以來로 露領이 되얏스며 一九一六年露國政府의 通報에 依하야 同島及西伯利沿岸諸島가 露國에 屬함은 各國이 承認하는 바이라 하얏더라

墨政府承認乎

(華盛頓二十八日發電) 米國이 數日中에 墨西哥現政府를 承認하리라더라

希臘將軍被殺

(雅典二十八日發電) 希臘『알바니아』國境確定委員長『지리니』將軍이 刺客에게 暗殺되얏는데 刺客은 아즉 逮捕치 못하얏더라

愛蘭統領

再次被選

(서브린二十八日發電) 愛蘭自由國大統領『코스쯔라부』氏는 同國議會에서 大統領으로 再選되고 內務、國防及敎育長官도 再選되얏더라

後藤氏入閣承諾

(東京電) 副總理로 入閣할 後藤子가 正式으로 入閣을 承諾하얏더라

山本內閣員決定

(東京至急電報) 山本內閣員은 如左히 決定하고 三十日午前十時에 親任式을 擧行한다더라

▲外務大臣後藤新平 ▲內務大臣有松英義 ▲陸軍大臣山梨半造(留任) ▲海軍大臣財部彪(留任) ▲大藏大臣若槻禮次郞 ▲(或은井上準之助) ▲司法大臣仲小路廉 ▲文部大臣平沼騏一郞 ▲農商務大臣市來乙彥 ▲遞信大臣井上準之助(或은若槻禮次郞) ▲鐵道大臣山之內一次

別報

(東京電報) 副總理로 入閣할 後藤子가 內務에 有松、大藏에 井上又는 若槻、司法에 仲小路『文部에 平沼、遞信에 若槻又는 井上을 候補者로 推薦한지라 此案은 山本伯의 大體承認한 바이나 其後同伯의 肚裡에 多少變更이 生한 貌樣인데 如左諸氏가 入閣한다는 說도 有하더라

▲外務後藤新平 ▲鐵道山之內一次 ▲海軍財部彪(留任) ▲陸軍田中義一 ▲大藏若槻禮次郞 ▲司法仲小路廉 ▲內務犬養毅 ▲遞信田健次郞 ▲農商務市來乙彥 ▲文部平沼騏一郞

山本權兵衛氏畧歷

氏는 鹿兒島藩士山本五百介의 三男이니 嘉永五年十月에 生하다 明治三年에 海軍兵學寮에 入하고 其後海軍小尉를 被任하야 海軍中將까지 累進하다가 同三十一年에 海軍大臣을 被任하고 同三十九年에 海軍大臣을 辭職하고 同二十七年에 大將으로 陞任하고 同四十年日露戰爭의 勳功에 依하야 伯爵을 特授하고 大正二年에 桂內閣이 辭職함의 內閣을 組織하야 總理가 되얏다가 大正三年四月에 辭職하야 今日에 至하얏더니 今番에 再次內閣을 組織함에 至하얏더라

山本伯推薦內容

(東京電) 西園寺公使는 廿七日其胸中에 內田臨時首相、山本權兵衛伯의 兩人을 內定한 後葉山에 赴하야 攝政殿下 씨 拜謁前에 松方公과 會見하고 二名의 候補者에 對하야 協議하얏는데 其時松方公이 曰 兩者가 皆可한즉 園公의 裁量에 一任한다 하얏스나 其言辭中에는 될수잇스면今에 一次山本伯을 任用케 하라는 意思가 有한듯한지라 仍히 葉山에 前往하야 牛田內大臣과도 協議하얏스나 松方公의 言辭中에 山本伯을 任用하기를 希望하는 意味가 包含된 故로 松方公의 意見을 尊重하야 山本伯을 第一候補로 決定하고 內田伯은 第二候補로 한 貌樣이라 如斯히 西園寺公이 即時此意를 奉答하고 平田內大臣으로 하야금 此意를 松方公에 報告케 하는 同時에 自己는 御殿場에 歸한 바이라 西園寺公이 山本伯과 會見하야 其意思도 聞치 아니하고 奉薦함은 松方公과 山本伯間에 旣히 何等의 諒解가 有한 貌樣인즉 山本伯을 主班으로 하는 後繼內閣은 即時組織될지오 又其性質은 前者의 山本內閣과 同樣으로 政友會와 聯立內閣으로 想像되겟다더라

山本內閣組織方針

(東電) 目下日本政局에 關하야 後繼內閣의 政策은

第一、外交의 刷新

第二、財政經濟의 調節과 物價及勞限의 低下

第三、綱紀肅正

第四、思想調和의 大方針을 實行할 事

인터 此에는 山本伯이 가장 適任者이라고 元老가 認定한 所以라더라

(東電) 山本伯은 後繼內閣을 組織하게 된바 內閣의 組織方針도 大體左의 二案中其一을 採用하리라는데

第一案 擧國一致內閣을 組織할 事

第二案 所謂人材內閣을 組織할 事

即一案은 政憲各派의 代表를 비롯하야 貴院實業界에서 選拔코자 하며 第二案은 少壯有爲의 人材를 網羅한다는데 結局第一、二案의 混合이 되리라더라

山本內閣과 政友會

嚴正中立態度

(東京電報) 政友會의 小川、三土兩總務及山本(悌)顧問은 二十八日午後六時부터 高橋總裁邸에서 會合한 後山本內閣에 對한 態度를 種々으로 協議하얏는데 大體左와 如히 議定하얏스니 政友會幹部全體의 意嚮으로 認할지라 即『山本伯은 前過가 有한 人이니 如斯한 人과 共히 行動함은 熟慮할 바이라 萬若政友會가 此에 協助한다 하면 國民이 非常히 政友會自體를 批難할 것이오 如斯함은 實로 不利益인 故로 政友會는 決코 入閣치 아니할 것은 勿論好意도 持치 아니하며 余體가 山本이라는 人은 世間과 沒交涉이오 骨董品으로 視할 人物이니 時代가 如斯한 人을 歡迎치 아니하는 故로 政友會는 山本內閣에 對하야 嚴正中立을 執하야 公正히 批判을 加할지오 同時에 政友會는 政友內閣主義로써 進行할 決心이라더라

(東京電報) 高橋政友會總裁邸에는 昨日全總督顧問等全部가 集合하야 山本伯의 禮辭에 對하야 協議한 結果 高橋總裁에 對한 禮辭가 即如左하니

今回大命을 奉受함에 至하야 余는 擧國一致內閣을 組織코저 하니 貴黨에서도 入閣하기를 望하노라

하고 此에 對하야 高橋總裁는 如何間 相議한 後에 回答하겟다 한 故로 此에 對하야 會合하얏는데 大體嚴正中立의 態度를 取하야 入閣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今後態度는 山本內閣의 成績에 依하야 活動할 貌樣이더라

高橋總裁辭意

(東京電報) 政友會高橋總裁는 今次政變에 對하야 元老間에 信任이 업슴을 覺悟하고 辭意를 某人에게 漏洩하얏다 하야 政友幹部間에서는 大히 憂慮하고 其留任을 勸告한다더라

憲政幹部會

態度가 模糊

(東京電報) 日本憲政會에서는 二十八日午後八時부터 加藤總裁私邸에서 若槻、武富、濱口、仙石、濱口、下岡、安達、江木、望月、片岡 各最高幹部가 參席한 後政局問題에 對하야 協議하고 午後十一時에 散會하얏는데 散會後下岡總務는 新聞記者에게 對하야 曰 二十九日에 協議한 結果는 要컨대 山本伯에게 大命이 降下하고 與否는 不當도 亦是明瞭치 아니하고 又組織될 內閣도 不明한 故로 從來我黨의 主張한 方針을 斷然코 變更치 아니할 事를 協議하얏다고 發表하얏더라

(東京電報) 憲政會에서는 從來의 憲政常道論을 高唱하는 勢와 背馳하야 二十九日夕에 最高幹部會를 開하게 되얏는데 日午後一時부터 本部에서 代議士各役員의 聯合會를 開하게 되얏는데 態度를 決定키 不能하며 尙且二十九日午後一時부터 本部에서 代議士各....... 若槻氏의 入閣을 實現케 하고자 頗히 腐心하는 貌樣이며 尙且山本伯과 犬養氏間에는 豫히 互相間諒解한 바가 잇서 犬養氏의 入閣이 實現하리라는 說은 相當히 注目할 바이오 犬養氏는 信州의 避暑地에서 單獨으로 歸京하게 되얏다더라

貴院贊成

山本內閣에 對하야

(東京電報) 山本內閣에 對하야 貴族院의 態度는 大體贊成이며 今後의 論爭은 오직 政策에 잇다고 觀測한다더라

鐵道一萬哩祝賀會

(大阪電報) 日本鐵道省主催인 鐵道一萬哩祝賀大會는 來十一月三四、五의 三日間大阪에서 開催하기로 決定하얏는데 其費用은 十萬圓에 니其中七萬圓은 鐵道省에서 負擔하고 五萬圓은 開催地의 大阪市及大阪을 中心으로 한 各郊外電鐵의 寄附金으로써 此에 充用하고 其餘三萬圓은 各私設鐵道其他의 寄附에 依하는 것이니 去年名古屋에 開한 五千哩紀念會의 當時에 比한즉 鐵道의 延長도 倍數에 達함으로 可成的盛大히 擧行하고 右三日間은 朝野의 名士千五百名을 中央公會堂에 招待한다더라

朝鮮感化院

官制公布

(東京電報) 二十九日官報로써 朝鮮總督府感化院官制及高等官官等俸給令改正(總督府感化院敎諭에 關한 者)件을 公布하얏더라

齋藤總督時局談

內田伯이라는 語를 聞한 時에는 四圍의 關係로 그리되얏나 하얏더니 只今山本伯에게 大命의 降下하얏슴이 無違의 電報라 하면 此際를 當하야 想像外의 人을 得한 것이라 云하겟도다 然이나 伯이 大命을 拜受하게 된다 하면 閣員選擇에 相當의 日時를 要하리로다 最後의 奏公이라는 決心도 有하겟고 政友會의 援助를 어느程度까지 受할는지 甚히 疑問이오 只今까지 往所聞과 如히 伯과 犬養君間에는 相當한 諒解가 有하다는 說이 果然眞的하야 今番의 內閣이 如斯한 關係를 基礎로 하야 造成된다 하면 近者에 唱導된 局面打開에도 相當한 效果는 期

銀行會社

三百十六社中無配當이 二百四社

最近京畿道商工課調査한 京畿道內會社數는 三百十六社로 其公稱資本金七億七千七十九萬八千五百圓中 拂込資本金五億六百四萬三千六百二十一圓其外에 外國人經營會社拂込終了百萬圓이며 此를 前年同期에 對比하면 會社數七社、公稱資本金一億六千二百十一萬二千五百圓拂込資本金二億七千五百九十六萬六千七百三十九圓이 減少하얏는데 此는 財界不況과 解散、減資等으로 因하야 減少한 것이라 利益은 僅少하나 缺損이 업는 것은 鑛業、林業、電氣業會社로 一方大利益이 잇스나 亦是一方으로 缺損한 會社는 工業、商業、農業、銀行金融業、運送業이오 又缺損이 업는 會社는 利益을 得하얏다 云 하는 狀況이며 然則三百十六社中幾分配當한 會社는 百十二社로 無配當은 二百四社에 이오 配當이 多한 會社는 二割로 一割五分乃至六七分이며 又會社의 減少한 것은 農業三、商業三 加한 會社는 林業二工業二三水產一 銀行金融業一四運送業一計四十一 十三其他十二社計四十八社이니 增加會社는 逐年增加할 可喜할 現象이라 此에 依하야 見하면 工業方面의 會社의 種別을 擧하면 工業八三商業一〇四鑛業六水產九農業一九林業四銀行金融業四五運送業一八電氣瓦斯三其他二五로 計三百十六社이라더라

京城米豆取引所

設立期成同盟會

京城은 朝鮮의 首都로 人口二十萬을 有하고 都市計劃이 完成後에는 能히 三十五萬以上에 達하겟슴으로 米穀消費力은 一個年四十萬石에 及하야 其價格의 高低는 一般生活에 影響함이 不尠할 뿐 아니라 政治經濟의 中心되는 都市로 米穀의 公定標準市場인 米豆取引所設置問題는 從來屢々히 論議되든 바 京城穀物商組合內에 事務所를 設하고 同三十日午後五時부터 京城俱樂部에서 同業者會合期成同盟會를 設立하기로 되얏더라

廣梁灣鹽田

復舊費七十萬圓

洪水及海嘯로 因한 廣梁灣鹽田의 被

工產物激增

生產額二億五千二百餘萬圓

學校建築問題

朝鮮兒童을 爲하야

平元線起工運動

水害被害民救濟

森鐵新線開通

京畿道面有林植林事業

朝銀券發行高

商況

大阪三品

大阪期米

後場亦暴落

前場小戾

暴落後의 月終戰

京取市貫價

公設市場時勢

辭令

訃告